

AI 반도체 투자 경쟁 격화… 생산능력 확보 등 수 십조 베팅

삼성 메모리·파운드리 인프라 확장
SK하이닉스 용인 팹 조기완공 추진
인텔 보통주 공모… 대규모 투자 전망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메모리와 첨단 공정, 패키징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투자가 필요해지면서 기술력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자본력도 주요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15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보통주 공모를 추진한다. 주관사에는 향후 30일 동안 최대 22억 5000만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옵션도 부여했다. 옵션까지 행사될 경우 조달 규모는 최대 172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

인텔의 이번 자금 조달은 AI 시장 확대에 대응해 반도체 사업 전반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텔은 지난달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기존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SK하이닉스

18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상향했다. 파운드리에서는 차세대 14A 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8년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iM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D램 설비투자 규모는 삼성전자 245억달러(약 35조원), SK하이닉스 232억달러(약 33조원)로 전망된다. 양사 모두 연간 200억달러가 넘는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양쪽에서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 D램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파운드리에서는 2나노 공정 양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도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HBM4에 적용되는 로직 베이스다이와 AI 반도체 물량이 늘면서 4나노 생산능력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도 HBM을 중심으로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6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으며 SK하이닉스는 당초 2045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이었던 4개 팹을 2033년까지 완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 메모리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생산시설 구축 일정도 앞당기는 모습이다.

해의 업체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파운드리 1위 TSMC는 AI용 첨단공정 수요 증가에 맞춰 2나노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월 생산능력이 기존 15만장 수준에서

올해 4분기 18만장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나노 역시 상반기 월 5만~6만장 수준에서 4분기 8만장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창신메모리(CXMT)가 최근 기업공개(IPO)를 통해 약 14조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중국 정부의 지원에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까지 더해지면서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고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CXMT의 D램 설비투자 규모는 약 70억달러로 2024년보다 75%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 개발과 함께 생산능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첨단공정과 메모리, 패키징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이를 지속할 수 있는 투자 여력도 기업들의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김성환 “반도체 산단, 책임지고 전력·용수 공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 장관,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강조
“깨끗하고 안정적인 탈탄소 전력 확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인공 지능(AI) 혁명 선도를 위한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용인·호남 등 핵심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필요한 탈탄소 전력과 산업 용수를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AI 혁명 선도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탈탄소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용인 및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인프라 지원과 관련해 전력과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 현황에 대해 “SK의 전력공급 문제는 충남 석탄발전소 폐지 후 LNG 대체 물량을 옮겨 짓는 1단계를 포함해 3단계로 추진 중이며 대체로 협력이 끝난 상황”이라며 “삼성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전자 국가산단의 경우 전력 공급이 늦어졌다기보다 토지 매입 등 조성 과정의 지체가 있었던 만큼, 전력 공급 지연으로 삼성반도체 건설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된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대해서는 “용인은 되고 호남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호남 반도체 추진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결단이 확정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만큼 용수와 전력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육성에 따른 용수 부족 우려를 두고는 “대한민국 5대강은 극한 가뭄이 오더라도 하천수 자체가 말라본 적이 없다”며 수자원 연계 시스템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는 한강에서, 호남 반도체는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용수를 공급하는데 이 강물은 마르지 않는다”며 “주요 강줄기와 댐, 댐과 댐을 연계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활용하면 가뭄 시에도 농업·공업·생활용수를 원활히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전력 및 에너지고성장 시대를 맞아 전력 산업 구조 재편과 계통 유연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조기 달성으로 전기국가로 발돋움하겠다”며 생활 속 태양광 확충,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 확대, 지역별 전력수급을 반영한 요금체계 정비 및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 개편 추진 구상을 공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8월 상순 수출 213억弗… 4년만에 최대치

(1일~10일)

반도체·석유제품 등 수출 증가

8월 상순 수출이 반도체 호황기에 힘입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해당 월 열흘간의 수출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21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3% 늘었다.

이는 8월 상순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종전 최대치인 2022년 8월의 156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조업일수는 작년과 같은 7일로, 일평균 수출액도 1년 전보다 45.3% 늘어난 30억 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무려 155.4% 증가한 99억 5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부문 역시 8월 상순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20.1%포인트(p) 늘어난 46.8%였다. 올해 5월 상순 확정치인 47.0%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이 밖에 석유제품(65.3%)과 컴퓨터 주변기기(139.5%) 등에서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9.1%)와 선박(-58.2%)과 승용차(-80.9%) 등은 감소했다. 승용차 부문은, 생산량 조정을 받는 여름 휴가철이 지난해 7월 말과 8월 초로 분산된 것과 달리 올해는 8월 초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대 중국(134.8%), 베트남(45.4%), 홍콩(259.4%), 유럽연합(EU·57.2%)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0.2%) 시장 수출은 승용차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중국·베트남·미국 등 상위 3개국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5%였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9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3.1% 증가했다. 품목별로 반도체(90.8%), 반도체 제조장비(77.3%) 등의 수입이 늘었다. 이에 반해 원유(-16.9%)와 가스(-10.0%) 등은 감소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의 영향으로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서울 오피스 거래규모 급증… 사무실 매매 5배 ‘경풍’

2분기 거래 1.7조… 전분기比 79% ↑

부진하게 움직이던 오피스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서울 도심권을 중심으로 대형 오피스 공급과 매각이 이어지면서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플래닛이 올해 2분기 서울시 오피스 매매시장을 분석한 결과, 오피스빌딩(일반건물) 거래금액은 1조 771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79.3% 상승했다. 작년 2분기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반등하면서 직전 분기 1조원을 밑돌던 흐름을 끊어냈다. 다만 아직까지 작년 2분기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

권역별로는 YBD(여의도 업무지구, 영등포구·마포구)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나증권빌딩’이 8112억원에 거래됐고, CBD(도심 업무지구, 종로구·중구)에서는 중구 순화동 ‘오렌지 센터(3500억원)’와 종로구 인의동 ‘하나손해보험빌딩(1369억원)’이 팔렸다.

사무실(집합건물) 매매 거래금액 역시 2조 595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전년 동기과 비교해도 53.7% 증가했다. 종로구 인사동 ‘G1 SEOUL’에서 약 1조 4198억원 규모의 거래 33건이 이뤄진 데 이어 구로구 구로동 ‘G-Tower’, 중구 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등에서 집중 거래가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향후 신규 공급 물량을 기밀할 수 있는 2분기 업무시설 건축인허가 연면적은 48만 2788㎡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5.8% 증가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2분기 서울 오피스 매매시장은 법인 간 거래가 오피스빌딩과 사무실 모두 90% 이상을 차지했다”며 “도심권을 중심으로 대형 오피스 공급과 매각이 이어지면서 향후 대형 거래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中 저가 덩핑 제동… 韓 ‘위기·기회’ 공존

≫ 1면 ‘정부, 美 무역확장법…’서 계속

중국산 저가 덩핑 물량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함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춘 한국 태양광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 정부는 이번 포고령에 미국 내 생산시설을 2029년 1월 20일일까지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232조 관세를 면제해주는 ‘온쇼어링 오프셋(Onshoring Offset)’ 인센티브 제도로 마련했다. 이는 관세 장벽과 투자 혜택을 동시에 활용해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를 강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삼성전자, SK실트론 등 반도체

및 원자재 수급 기업의 경우, 미국 내 폴리실리콘 자급률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 불안이나 원가 상승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면밀한 공급망 관리가 요구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참석 기업들은 미국의 232조 조치가 대미 수출 및 현지 공장 운영에 미칠 장·단기적인 영향을 품목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번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에 따른 우리 업계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적시적소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